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2015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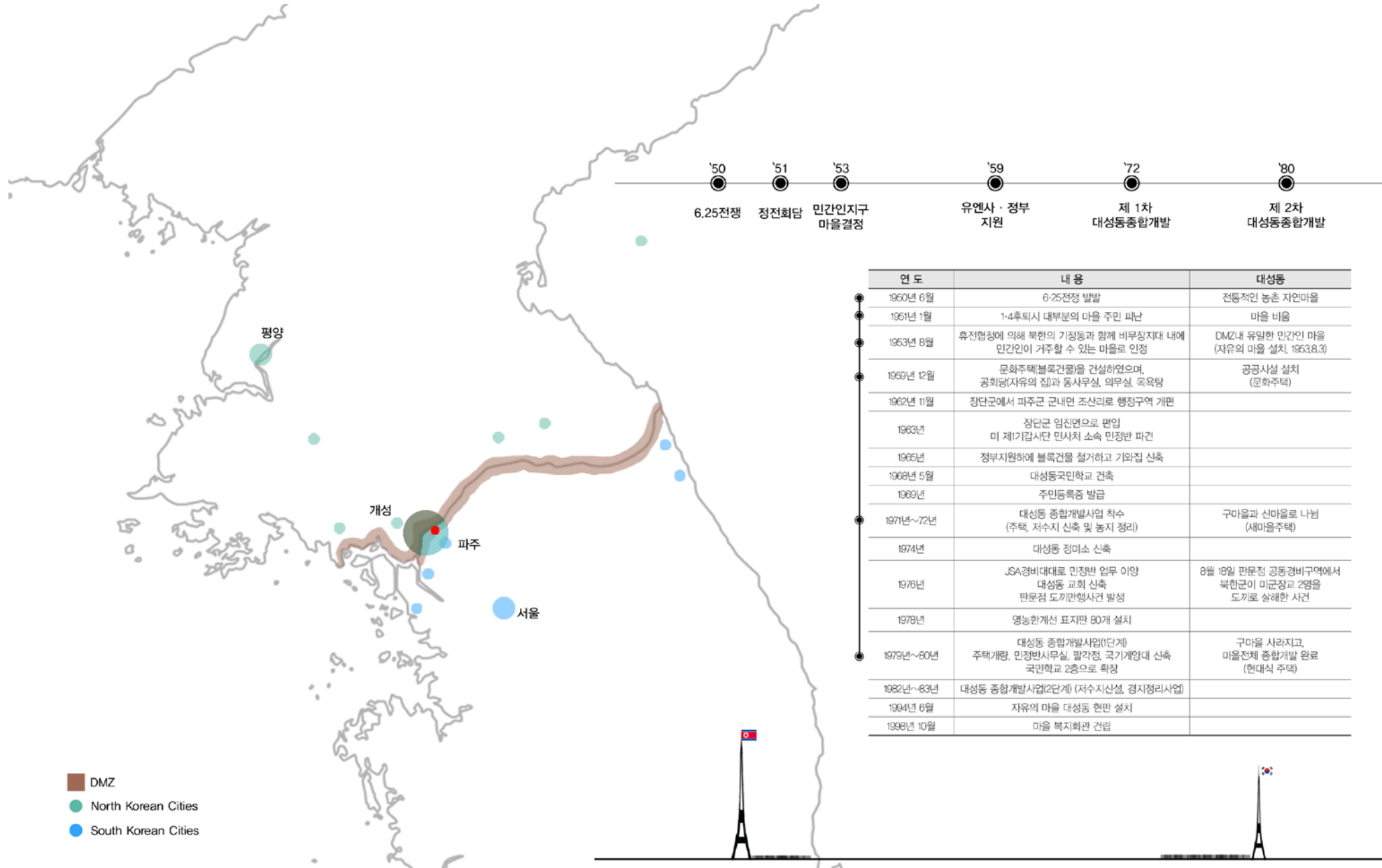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통일 미래를 먼저 만나는 대성동 커뮤니티 서비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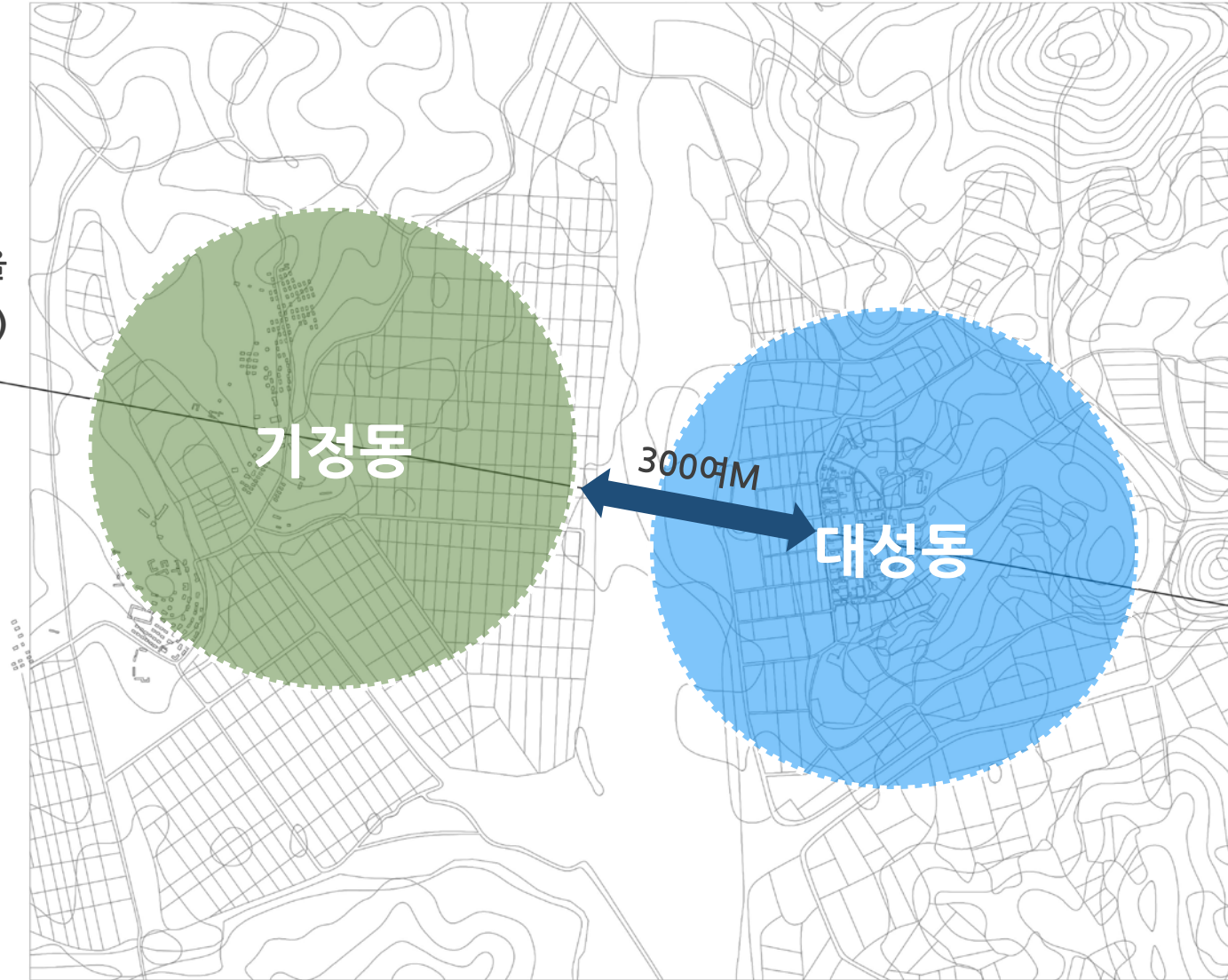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과제 배경



과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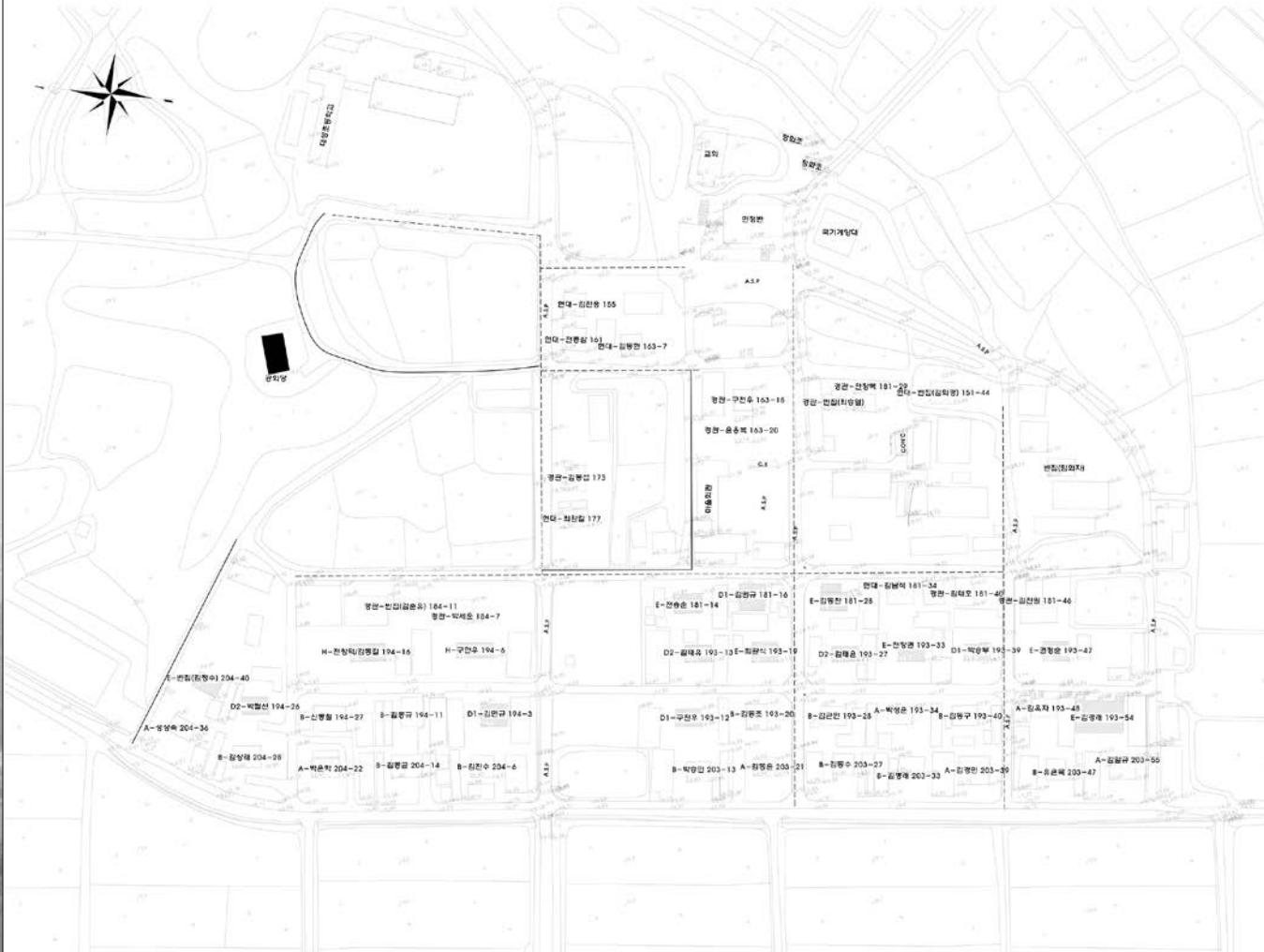
북한 DMZ 內 마을
-기정동(동향)



남한 DMZ 內 마을
-대성동(서향)

과제 배경

대성동 마을 현황도



주택 유형



주택형	건축연도	건축면적	동수	비고
A	1980	27평	7동	
B	1980	28평	12동	
D1	1980	32평	4동	
D2	1980	32평	3동	
E	1980	34평	7동	
H	1980	56평	2동	연합
경관	1983	30평	9동	
현대	90년대	30~40평	6동	
합계			51동	일화차 1동 포함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마을 노후주택 개량	주택 47동	2,400	
마을하수도 권거정비	L=3.1km	780	
마을 연결 포장	L=0.2km	110	
마을 배수로 정비	L=0.3km	100	
중회랑 리모델링	A=208㎡	500	연계사업



과제 방향

현재 행사부 주관으로 동일 명의 선행 과제가 기 진행 중 에 있음 → 시급한 현실문제 해결 과제 우선

통일미래의 방향성 등 선행 과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국민디자인단의 본 과제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을 함으로써 선행과제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조율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본 과제의 기여도를 설정하고자 함

선행 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참조할 만한 서비스 디자인 관점의 유용한 정보 및 아이디어 제공



동일명의 선행 과제 (www.dmz.go.kr)



국민디자인단의 서비스디자인 과제

| 과제 방향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자 대성동의 분단&통일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과제 목표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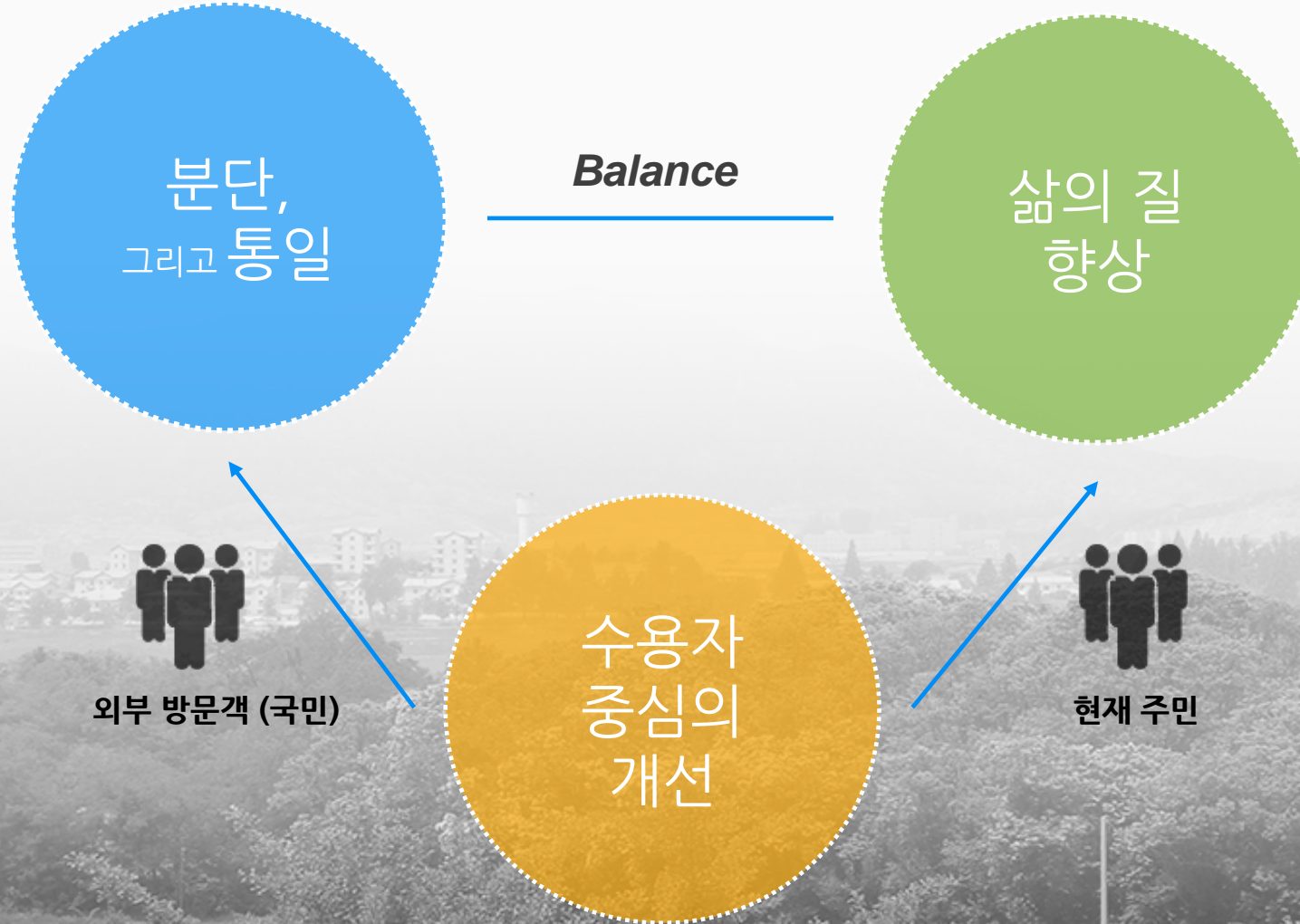
DMZ 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

+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살려 통일을 맞이하는 첫마을로 재탄생

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발상 및 정보 제공

과제 도전 사안



과제 진행 프로세스



| 리서치에서 도출한 핵심 키워드

“대성동 삶의 질 개선”

냉난방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개량을 기본 목적(선행
과제의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고취를 위한 요소 발굴

“대성동 커뮤니티 문화의 보존 및 지속가능성”

대성동 마을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통일 전후
지속적으로 보존시키고
전승할 방안 마련

“대성동 마을의 상징성”

분단, 통일의 상징인 대성동
마을의 정체성을 상징화
(마을 싸인, 명패, 우체통,
간판, 건축물, 지붕 및 마을색,
생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은
기 진행 과제에서 추가로
진행 되길 희망함)

“통일 거점지역 관광지로서의 대성동” (통일 가치 부각 및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

통일 관광지로서의
대성동 개발 / 통일 관광
사업을 통한 마을 경제
활성화 →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디자인 방향 및 컨셉

*분단된 남과 북이 다시 만나 통일국가를 이루고,
이웃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주민이 다시 만나 왕래하고,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선대와 통일한반도를 살아갈 후대가 다시 만나 역사를 공유하고,
출입이 통제된 대성동의 주민과 외부인이 다시 만나 대성동의 존재적 가치를 공감하고,
분단의 과거와 통일된 미래가 다시 만나 한민족의 중흥을 도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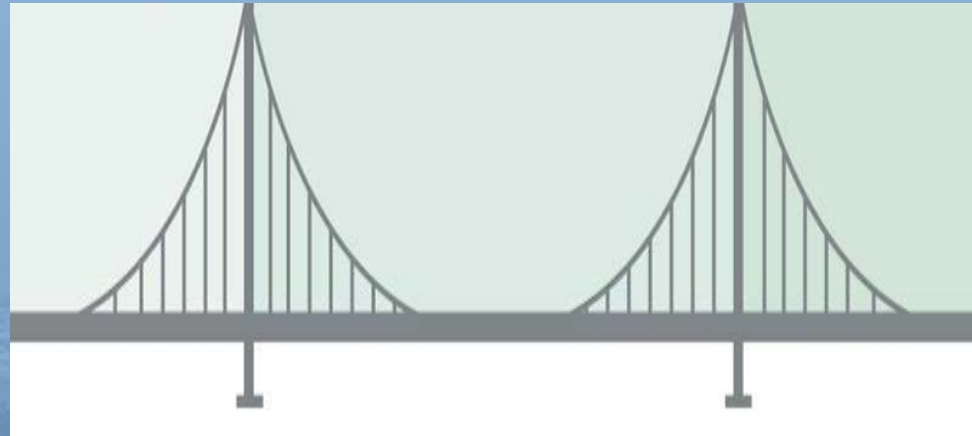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대성동에서 미리 체험해 보다!**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되는 한반도를 “다시 만나는” 미래를 대성동에서 먼저 체험

미래와 ‘다시’ 만나다

미래지향적

희망, 밝음



preview

연결, 이음, 개방

다리 (bridge)

서로 다시 만나게끔 해주는 다리와 같은 서비스 요소의 발굴



| 디자인 접근 전략



냉난방문제와 주택 개량 그 이상의 커뮤니티 문화지속성 및 외부사회와의 교류 등 삶의 질 고려

의식주문제로서 생존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냉난방 문제와 주택 개량을 넘어
대성동 삶의 자존감과 활력소, 생활의 비타민이 되는 부가 요소추가



통일된 미래를 체험하는 관광지로서의 대성동

분단의 아픔, 안보의 중요성에만
무게를 둔 숙연한 관광



밝고 희망찬 통일을 기대하며 현실을
Preview 할 수 있는 체험관광

| 디자인 접근 전략 : 관광지로서의 대성동



일반적인 인식: 대성동은 여러 군사적, 정치적 특수성에 따른 제약과 규제로 사실상 관광지화 하기는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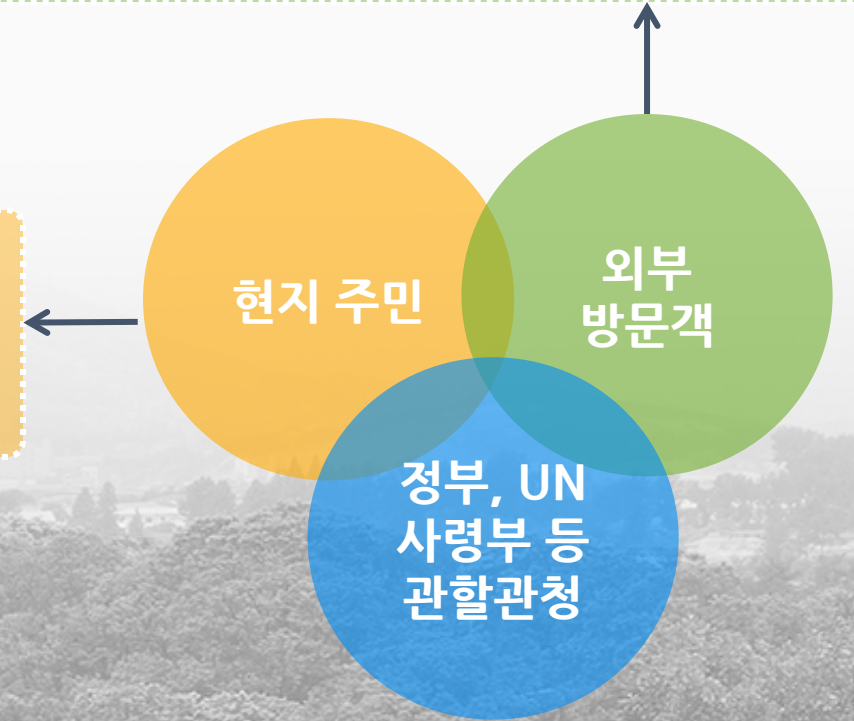


디자인은, 종종 창의적 도발과 역발상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다.
만약 대성동의 관광지화를 가로막는 제약과 규제를 오히려 관광 콘텐츠로
역이용한다면??

| 관광 이해당사자의 Needs

많은 관광객이 몰려 혼잡하고 상업적인 흔해빠진 그런 여행은 **NO!**
해외가 아니라도 국내에서 하는 이색적인 관광 체험은 **YES!**

관광 **YES!** (주 수입원인 농업 이외의 사업 모델로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그렇지만 '오버 관광'은 **NO!** (관광지화로 인한 공동체 커뮤니티 문화 파괴의 우려)



군사 지역으로 통제가 힘들고 신원 파악이 어려운 외부 방문객 대거 출입은 곤란
이미 적용 중인 법규/규제/제약 등을 변경하기는 곤란

| 제약/규제와 역발상

관광에 걸림돌이 되는 현재의 제약과 규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역발상
친척이나 대성동 주민이 초청한 지인이 아니고서는 대성동 방문 불가 / 2주 전 사전 예약 등의 불편성	➔	주민이 직접 선정한 사전 방문 신청자로 구성된 소수의 안전한 관광 (다른 관광지과 달리 상업적 접근이 제한된 체험위주의 관광)
보안상 군인이 동행하며 감시	➔	1:1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색다른 하이클래스 관광
제한된 경로로만 대성동 관계자와 동행	➔	현지 주민의 친절하고 생생한 스토리텔링식 가이드
마을 내 외부인이 이용할 상업 식당이 없어 불편	➔	현지 주민이 차려주는 일반 가정식(집밥)을 체험 (이북 요리 체험 등)
출입할 때의 복잡한 보안 절차, UN 사령부 관할 등의 접근성 문제	➔	통일 미래를 체험할 대성동의 전용 여권(일일패스)을 관광객에게 발급 (국내임에도 다단계 통행 절차를 경험, 일일 패스로서의 여권(상징적 개념)을 사용하는 UN 사령부 관할의 이색성에 대한 관광적 재미 요소 발굴)
상업 숙박 시설이 없음	➔	주변 관광코스과 연계해 만나질 코스의 짝고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알찬 여행 프로그램
쇼핑할 만한 상권이 없음	➔	전용 패스, 대성동 전용 통일 화폐 등 여행 프로그램용 소품이 곧 기념품 / 자칫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호객 행위가 없는 청정 관광의 이미지를 부각

| 관광과 보존: DMZ 3종 보존 세트

Key Point!!

1종에 해당하는 자연 생태계 이외에도 DMZ에는 보존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둘이 더 있다!



1종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DMZ의 생태계 보존

정책적 사안으로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와 활동이 이미 전개 중인 보존 대상지역



2종 정치적, 지역적 특수성에서 발생한 대성동 고유의 공동체 문화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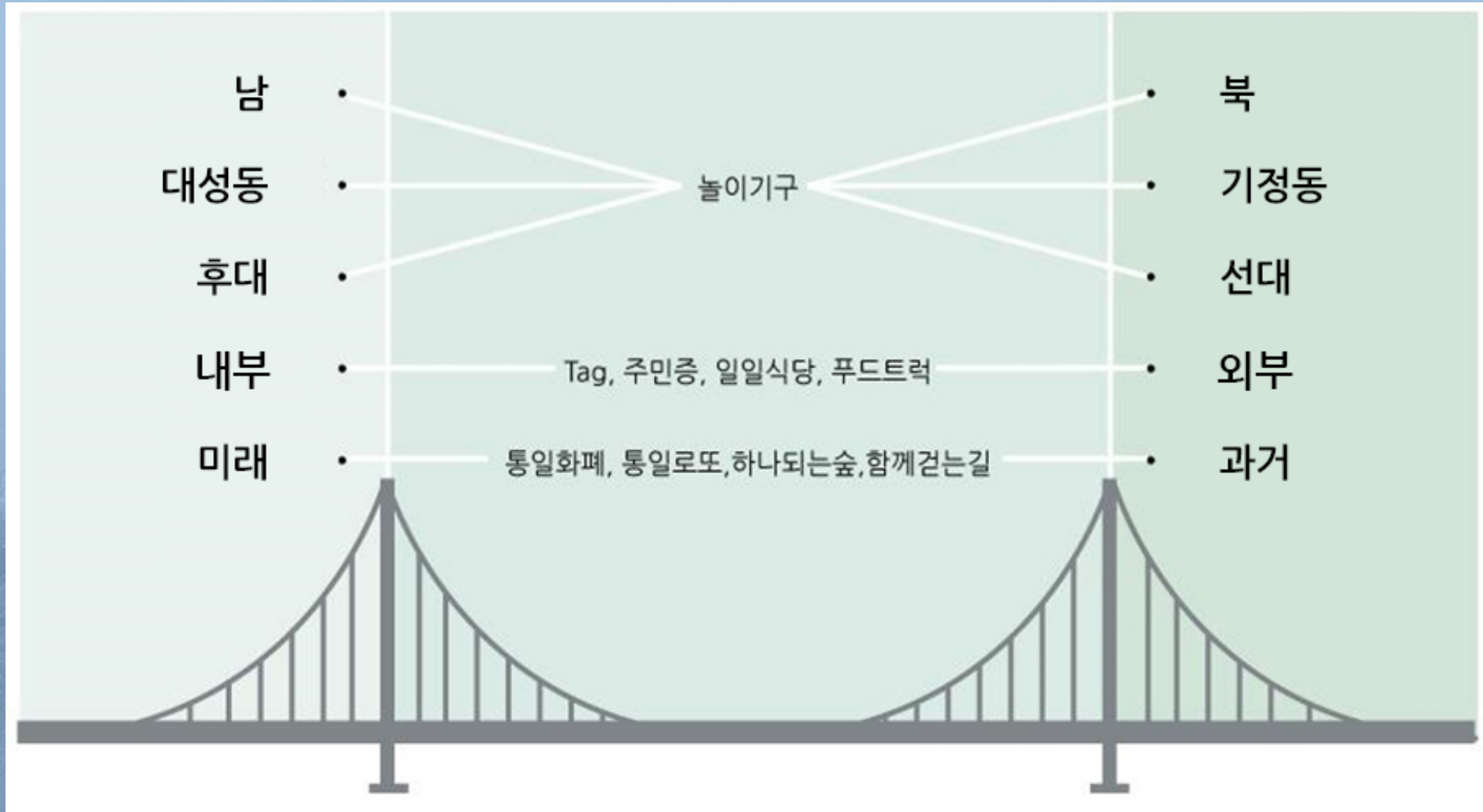
통일 이전 관광지화, 통일 후 정치적/지역적 특수성의 소멸 이후에도 대성동 주민들은 지금의 마을 공동체 문화를 계속 유지하길 원함 (예: 문 안 잠그고 살아도 되는 동네) 대성동 주민을 위해 공동체 보존에 대한 정책이 필요



3종 분단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차원에서 대성동내 역사 가치물 보존

통일 후에도 분단의 아픔과 남북 대치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도록 대성동의 역사적 기록과 가치물을 잘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예: 마을 구공회당 내 만들어질 역사기록소의 유지 및 활성화)

| 도출한 서비스 디자인 개념 및 요소



IDEA Sketch Book : 10 개의 서비스 디자인 아이템 개발

통일 관광 거점마을 '대성동'

1. 대성동 통일 관광 프로그램
2. 대성동 가이드 디바이스
3. 대성동 일일 주민증
4. 대성동 일일 집밥식당
5. 대성동 통일화폐
6. 통일기원 하나로 로또

삶의 콘텐츠가 있는 '대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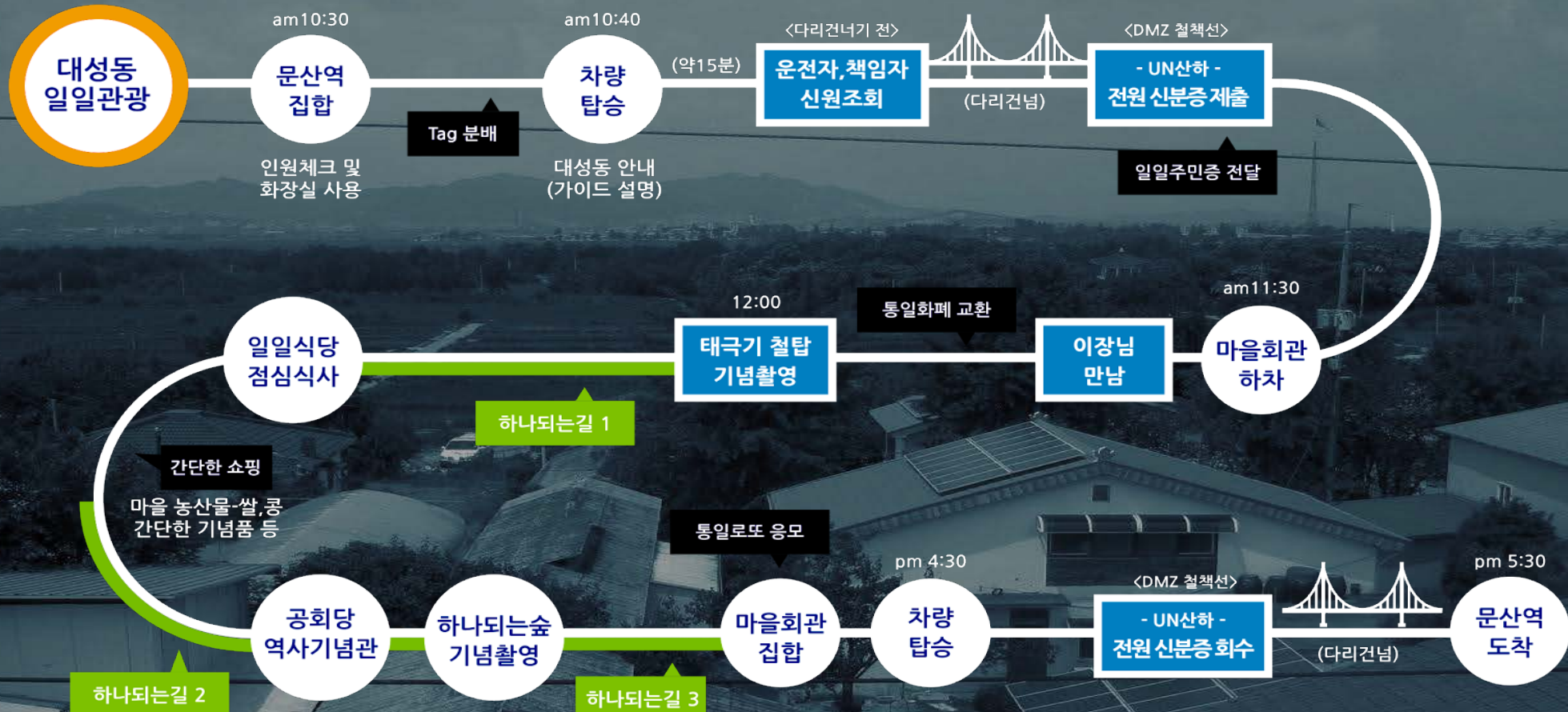
7. 행복 실은 Food Truck
8. 하나를 위한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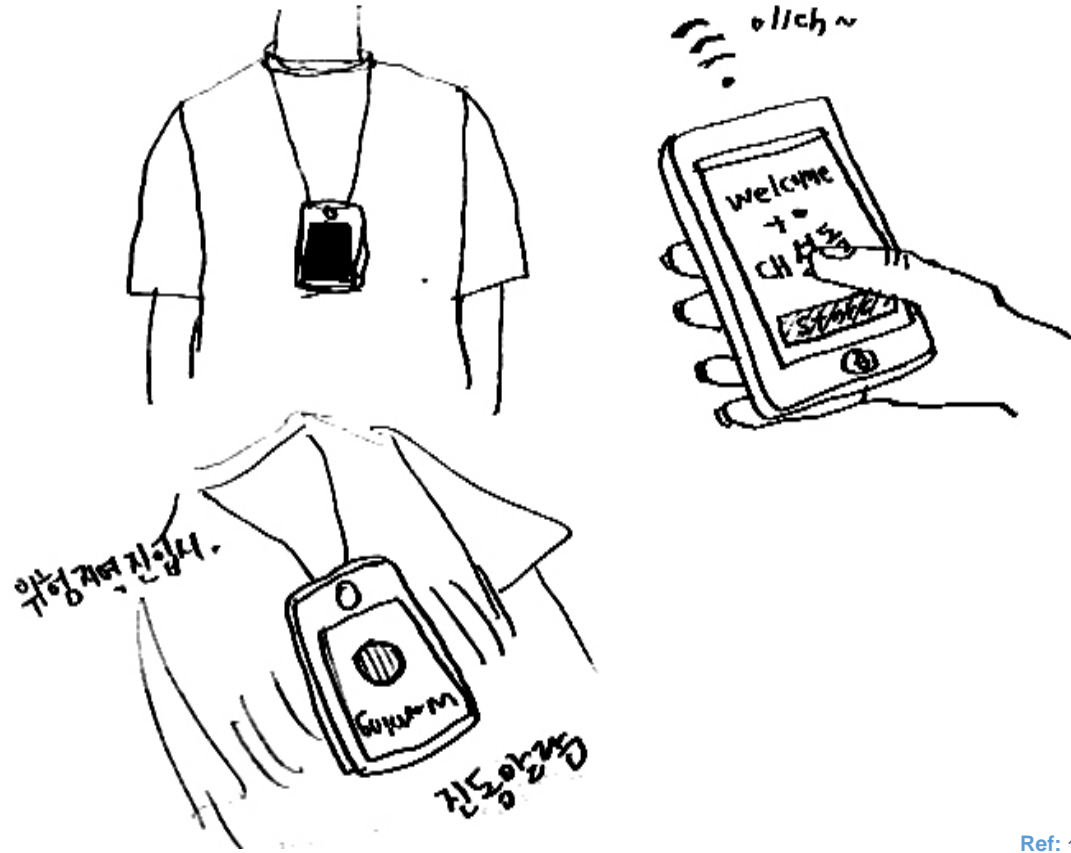
통일의 상징 '대성동'

9. 하나되는 길
10. 하나되는 숲

IDEA Sketch Book : 1. 대성동 통일관광 프로그램

통일 관광 거점 '대성동'





대성동 마을에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

목적

대성동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및 안전 가이드 역할

상세 설명

대성동 마을 회관에 도착해서 관광객들이 받는 모바일 디바이스이다. 마을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앱과 연동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이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가이드 역할을 한다.(형태는 JSA군인 캐릭터 모양 등 다양화 시도)

탑재된 기능

대성동 마을 지도 제공, 대성동 마을 관광 추천 코스 제공 및 네비게이션, 1일 식당 이용 시 식사 제공하는 집, 오늘의 메뉴 정보 제공, 위험 지역(북에 근접)에 진입 시 알림 기능, 마을 기록 박물관 가이드, 대성동 마을 관광 종료 시점 알림(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연동 가능)

Ref: 셀카용 셔터 리모컨에 미아 및 물품 분실 방지 기능을 갖춘 스카이디지털 '라바 셀카 알리미' 와 스마트가이드 리움





대성동 주민증을 대성동 일일주민증으로 만들어 제공

목적

관광객들에게 이색적 경험 제공

상세 설명

대성동 관광을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성동 진입/진출 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한다. 일일 대성동 주민임을 증명하고 관광객들에게 대성동 관광 기념품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여권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구성

Ref: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1day pass
- 관광인원 제한을 목적으로 한 통행증





동네 주민의 가정집을 일일식당으로 이용

목적

식사를 대접한 주민의 스토리를 소개함으로써 외부인과 소통하는 기회 마련. 개인이 하나의 브랜드로 기회가 됨

상세 설명

대성동은 식당이 없어 관광객이 식사를 할 장소가 마땅치않다. 주민들 중 한 가정집을 선정하여 그날의 가정식을 대접하며, 그 식사값은 식사를 대접한 주인에게 통일화폐로 지급한다.

Ref: 6월 18일 KBS1TV 한국인의 밥상

<DMZ 로드 1부, 사람이 살고 있었네>편에 방영되었던 대성동 마을의 한 가정 음식.





기타
" 우리의 도시권 통일 "

통일
이화폐

대성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일화폐

목적

통일 후 한반도에서 쓰일 미래의 화폐를 대성동에서 미리 만나본다는 의미를 지닌 대성동 관광 전용 화폐. 대성동이 통일 거점으로서 통일의 상징이 되는 마을임을 강조하고 대성동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대성동 관광만의 이색체험과 의미를 부여함.

상세 설명

통일 과업의 상징적인 인물이 들어간 통일 화폐이다. 대성동이 통일의 상징이 되는 마을이라는 것을 강조, 이 돈은 마을 회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성동 내 일일 집밥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 화폐로 계산을 한다. 다 쓰고 남은 통일 화폐는 대성동 관광 후 마을 회관에서 다시 일반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화폐 자체도 대성동 관광의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Ref: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 업전





통일 날짜를 예상하고 응모하면 통일이 되는 날 추첨

목적

통일이 올 수 있다는 현실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함

상세 설명

대성동 관광을 마친 후,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통일이 되는 날짜를 예상하여 응모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날, 그 날짜를 정확히 맞춘 관광객들 중 추첨을 통하여 통일기원 상금과 의미 있는 통일 기념품을 선물하도록 한다. 각 응모권 마다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땅에 묻는 타임 캡슐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로 운용하도록 하며 항시 전산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Ref: 생명의 빛

- 국토 최남단에 10년 전 묻은 타임캡슐

- 타임캡슐 안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05년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받은 꿈과 희망의 메시지 531건이 담겨 봉인되어 있음

- 애초 올해 바다의 날(2015.6.1)에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너무 이른다는 판단아래 개봉이 미뤄졌음





대성동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Food Truck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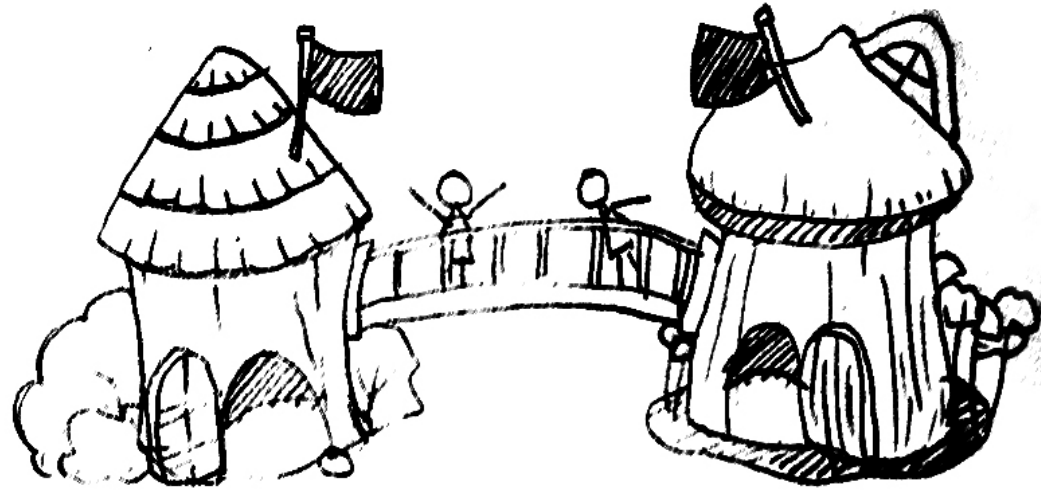
상점은 물론 볼거리 놀 거리가 없는 대성동의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추억의 공간 제공.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미니 우체국의 역할도 가능

상세 설명

매주 다른 푸드트럭이 대성동에 방문하여 대성동 아이들에게 놀 거리 먹을 거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 트럭은 지역 지자체와 연계하여 비영리 공공사업으로 운영 하도록 한다. 또한, 택배, 식료품 배달 등 외부로부터 대성동에 들어오는 소비재 물품 등의 배달과 미니 우체국의 역할을 통해 폐쇄된 대성동과 외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Ref: 외국의 푸드트럭 사례





대성동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목적

하나로 연결된 놀이기구를 통해 아이들이 통일 후 미래를 간접경험 하게 함

상세 설명

대성동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요구와 통일을 상징하는 대성동의 존재 의미를 결합하여 만든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이다. 대성동(남)과 기정동(북)을 구름다리로 연결시켜 하나된 조국의 통일 염원을 상징화 하였다. 하나로 연결된 놀이기구를 통해 하나된 통일조국의 깃발아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나마 통일 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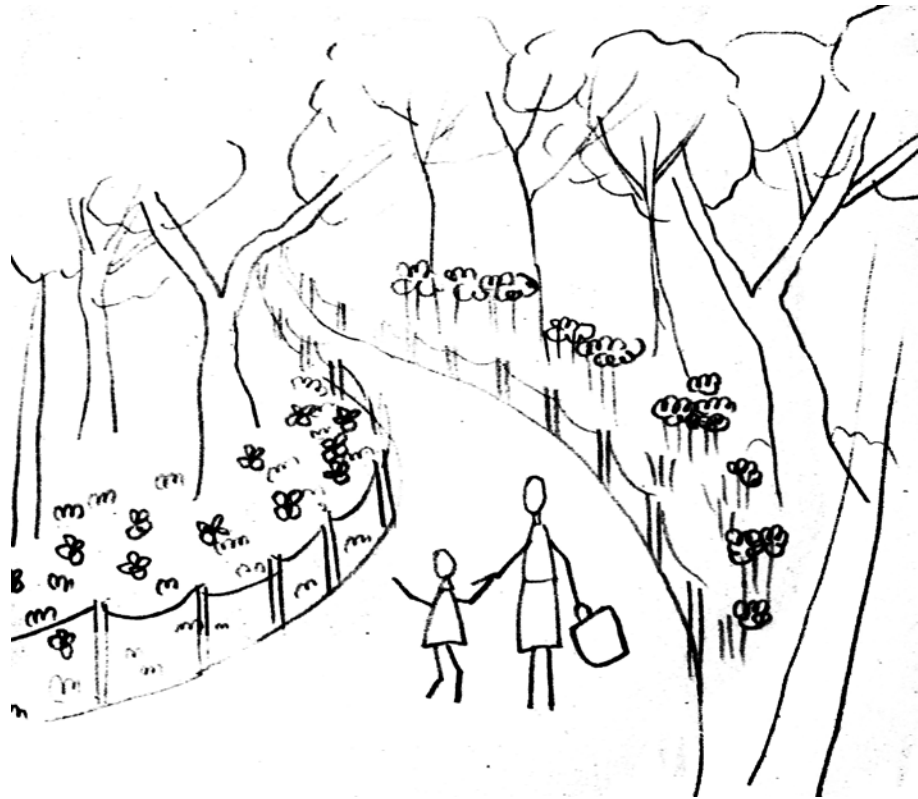
+



*"어린이는 통일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이고,
화해의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Ref: 평화를 위한 작은 조각들'(Small Piece for Peace)
2007년작 독일 하일리겐담





대성동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체험 산책코스

목적

미래에 통일이 되었을 때 기정동 마을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 코스의 일부를 대성동에 미리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 산책길. 올레길 등 다른 지역에 많이 조성된 산책/조깅 코스를 대성동에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쉼터 및 소통 기회를 제공

상세설명

대성동 주민과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회관을 기점으로 공회당 주변과 마을 내.외곽으로 탐방코스를 조성한다. 식사 후 가볍게 걸으며 마을의 전경은 물론 저 멀리 북한을 바라보며 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 대성동은 동네에 따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휴게시설 등 유희공간이 없으므로 탐방코스 주변에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내지 방문객의 체험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한다.

Ref:





마을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를 위한 대성동 공회당 숲 공원

목적

미래에 통일이 되었을 때 기정동까지 이어질 하나되는길의 한 지점으로서의 미니 숲 공원. 마을주민의 생활의 질 뿐만 아니라 방문객 및 관광객들에게 쉼터 및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제공토록 한다.

상세 설명

국가기록원과 함께 전시공간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공회당은 대성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오래된 자산으로서 중요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주변을 둘러싼 산책코스와 그 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 쉼터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나무 외에도 다양한 조경수와 꽃을 심어서 하나된 남북을 기원하는 자유의 숲을 조성하도록 한다.

숲의 한 가운데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대성동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Ref: 독일의 기념관 내 외부

정책적 변화에 대한 기대 효과

1

선행 과제가 주거 개량이라는
기본적 니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중이라면, 본 과제는 그 밖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소로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동시에 분단과
통일을 안고 사는 대성동 특유의
역사성과 커뮤니티의 조화 및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 냄

2

이를 통해 선행 과제에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아이템들을 접목한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여 마을의
정체성과 대성동만의 고유한
상징브랜드를 찾아주어 주민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 고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3

아울러 향후 대성동 주민을 위한
공공 정책 계획 수립에 있어서 본
과제에서 개발한 디자인 frame
work에 기반하여 '통일미래지향
적 대성동', '통일이라는 역사적
키워드와 삶의 질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 과 같은 보다
창의적인 공공 서비스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

|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기대 효과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대성동 과제를
하기 전(**Before**)

삶에 있어 당장 시급한 issue인 주택 개량에만 집중
여러 가지 제약사항과 규약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의 다각화는 물론 관광지로서의
대성동 개발은 사실 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대성동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After**)

SD 특유의 생활밀착형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 주택 개량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사회/경제 측면의 요소들을 발굴
디자인 역 발상을 통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온 대성동 관광지화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

에필로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기 힘든 곳,
그러나 다시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그
곳, 대성동에 계시신 분들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By 김서연



“진심으로 대성동 주민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외형적인 건물들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필요를
마음으로 이해하여, 사회적으로도 이롭고
주민들의 삶 속에도 더 큰 행복이 자라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소망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 박영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By 이경민

“숨겨져 있던 마을 대성동, 고요하고 순수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참 특별한 곳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특별한 곳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면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큰 기쁨이 될 것 같고,
꼭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By 김유지





Directed by 김성우,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Interaction Design 전공 교수

“대성동에서 첫 맞이하는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대성동의 삶이 지속되길..”

Presented by 박순정,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